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375
----------	-------

발의연월일 : 2026. 6. 19.

발 의 자 : 김남근 · 허성무 · 민병덕
박홍배 · 김현정 · 이훈기
김문수 · 송재봉 · 김우영
김 윤 · 진선미 · 정진욱
이주희 · 박선원 · 백승아
이강일 · 박정현 · 박 정
복기왕 · 박희승 · 진성준
최혁진 의원(2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본부에게 법 위반행위로 인해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3배 이내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법원의 판결에서는 평균적으로 배상액이 그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1.5배 이하이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20세기 초 미국의 공정경쟁법 분야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의 일종인 3배 손해배상(Treble Damage) 제도는 최소한 3배의 징벌적 배상을 하도록 해야 고의적 또는 악의적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유효적 효과가 있다는 경제학계의 분석 등을 바탕으로 고의 또는 악의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면 실손해의 3배로 정한 액수를 손해배상액수로 판결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설계되었음. 그러나 한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이를 계수하는 과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3배 이내”로 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법원의 재량에 맡겼는데, 실손해 배상제도에만 익숙해져 있는 법원은 실손해 위주의 일반 손해배상 제도와 거의 유사하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운용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적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함.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요건을 갖춘 경우 먼저,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규모 등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데 참작하는 요소들이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이유로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2항 본문 중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를 “3배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을 “제2항에도 불구하고”로, “고려하여야 한다”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생략)</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 가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호 및 제12조의5를 위반함 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 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u>3배</u>를 <u>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u> 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p> <p>③ 법원은 <u>제2항의 배상액을</u> <u>정할 때에는</u>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u>고려하여야 한다.</u></p> <p>1. ~ 7. (생략)</p> <p>④ (생략)</p>	<p>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현 행과 같음)</p> <p>② ----- ----- ----- ----- -----<u>3배의</u>----- ----- ----- ----- ----- -----</p> <p>③ -----<u>제2항에도 불구하고</u> -----<u>고려하</u> <u>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u></p> <p>1. ~ 7.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